

'친절·안전'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평가

전주시, 시민모니터단·암행평가 등 실시... 무정차·급출발·난폭 운전 등 불친절 사항 처분 강화

전주시가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의 친절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평가를 한다.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과 불친절 행위 등을 근절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 평가에는 △불친절, 난폭 운전, 무정차, 조·연발 등 시민모니터단 평가 결과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및 중간시간표 내역 △암행평가 결과 등이 모두 반영된다.

시는 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와 운전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점수를 받은 시내버스 회사와 운전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매월 10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시민 15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모니터단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기사들의 운행행위와 친절 행위, 차량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포함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기존 친절·안전기사 추천과 차량 내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제보 중심으로 이뤄지던 시민모니터단 활동은

올해부터 △무정차 △급출발 △급정거 △난폭운전 등 불친절 제보 및 모니터링으로 한층 강화됐다.

시는 시민모니터단 평가와 불편민원 신고 내역을 고려해 집중점검 대상 시내버스를 선정하고, 운행 태도와 무정차, 급출발 등에 대한 암행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조·연발 등의 위반사항은 민원접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를 활용한 적발 및 처분 등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

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내버스의 과속 방지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내버스 각 노선에 중간시간표를 도입했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평가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가 정착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던 숲속의 도서관인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이 정비를 마치고 숲 특화 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했다.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 탈바꿈

전주시, 리모델링 마치고 숲 특화 도서관으로 재개관

전주지역 대표 숲속 도서관인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이 숲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속 책놀이터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던 숲속의 도서관인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이 정비를 마치고 숲 특화 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

재개관한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입면과 단열창호를 변경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를 변경해 새롭게 단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 회랑이 설치되고, 야외에서도 책을 읽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야외 데크도 확장했다.

건물 내부는 책상을 변경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 변화를 통해 도서관을 혼자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이용객이 숲을 조망하며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정서 구성은 △숲과 관련한 이야기 관련 '수풀사이' △맑은 숲을

실 수 있게 해주는 숲을 지키는 방법을 담은 '들날쌔 숲' △숲에 가면 볼 수 있는 생물들을 책으로 만나는 '숲속에 가면'이라는 세 가지 특화 주제 도서와 일반도서를 포함한 3087권이 비치됐다.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은 향후 숲속 도감을 통해 알게 된 생물들을 직접 만나보는 체험활동 등 숲속에서 다채로운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오는 10일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버려지는 그림책으로 팝업북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라기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편백나무가 맞이하는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숲의 매력을 더 알게 되고, 자연 속에서 잠시 머물며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풍·호우 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보호 위해 사전 정비 실시

전주시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8월과 9월 두 달 간 강풍과 폭우로 인한 차량 파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

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813개) △횡단보도 조명등(2155개) △교통안전 표지판(1만2179개) △반사경(2052개) △시선유도봉(1만560개) 등이다.

시는 경찰과 함께 이들 시설물을 대

상으로 신호제어기 접지상태와 신호회전 누전상태 등 파손 여부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즉시 보수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약 34억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도로 및 생활도로 2500㎡ 구간 차선 도색 △중앙분리대 232m 정비 △신호등 28개소, 교통표지판 140개, 반사경 337개소, 시선유도봉 1300개 등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했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설물 파손 및 정비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해 재난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공영자전거 상반기 이용 45% 급증

전주시 공영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공영자전거 대여건수가 총 9713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719건보다 2994건(44.6%)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공영자전거 대여건수가 급증한 것은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데다 시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와 팹바이크(운동형 자전거) 등 체험형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새로 구입한 자전거는 전기자전거 19대와 팹바이크 9대, 2인용 자전거 및 일반 자전거 등 총 163대다.

전주한옥마을 전주향교 앞에 있는 향교대여소의 경우 지난해 1651건에서 올해 2012건으로 361건(21.9%) 늘어났다.

향교대여소 대여건수는 전주시 9개

공영자전거 대여소 전체 대여건수의 21%를 차지한다.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전주시 공영자전거를 타고 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내 곳곳을 누비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시 공영자전거는 전주향교를 포함해 평화의전당 주차장 등 9곳의 대여소에 총 404대가 비치돼 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몰시간을 고려해 하절기는 오후 7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영자전거 이용요금은 1회에 1000원이다. 대여소 운영시간 내에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폰 인증만으로 9개 대여소 어디에서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만 14세 이하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향후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이 핸드폰과 카드로 대여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민 이용편의 사항을 확대



전주시 공영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 계획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천변과 한옥마을 주변, 치명자산 성지와 평화의 전당 등 주요관

광지와 여가저거 둘러볼 거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공영자전거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청 9지구대, '빗길 미끄러짐' 사고 예방 총력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2일 지구대장, 시설 담당, 사고조사 요원 및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교통안전팀이 참석한 가운데 빗길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현장감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담회는 최근 빗길 미끄러짐으로 경미한 사고가 잇따르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170km 지점 굴암교 부근에 대한 도로 여건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미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은 빗길에서 충분한 감속 부족 및 급격한 핸들 조작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찰 등은 집중호우 시 해당 구간 일람 순찰을 강화하고 빗길 감속 표지판 및 종방향 그루빙(세로로 길게 홈이 파여 있는 구간), 이동형 과속카메라 부스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주의와 경각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